

한국 여성의 지하철 내 성범죄두려움 분석*

Analysis on the Korean Women's Fear of Sexual Crime in Seoul Metropolitan Subway System

이윤호* · 성용은** · 유영재*** · 전은주****

〈목 차〉

I. 서론	IV. 분석결과
II. 이론적 논의	V. 결론
III. 연구설계	

〈요 약〉

이 연구에서는 오늘날 대중교통의 중심이 되는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즉, 범죄 두려움 중 지하철 내 여성의 성범죄두려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지하철 이용 여성의 지하철 이용 및 옷차림 등에 대한 실태 분석, 둘째, 범죄정보에 대한 관심과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셋째, 지하철 내 성범죄두려움의 특성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평소 옷차림 선호, 범죄관심, 범죄인식 등 주요한 요인과 성범죄두려움의 관계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사실의 발견을 위한 양적인 연구방법으로서 현실 분석적이며, 기술적인 연구방법과 실증적 연구방법을 병행해서 사용하였으며,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일반여성 5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509명의 설문지를 최종 통계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조사결과 지하철 내에서 여성이 느끼는 성범죄의 두려움의 정도는 다소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월소득 수준이 높은 여성 일수록, 그리고 전세나 자가에 거주하는 여성 일수록 지하철 내에서 성범죄두

이 연구는 2006학년도 동국대학교 연구기간강화사업(소형)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수료

***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려움을 더욱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지하철 내 성범죄의 유형별로 그 발생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되는 성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두려움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평소 여성의 화려한 옷차림 선호, 범죄정보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일반적인 범죄발생의 수준에 대한 인식과 지하철 내 성범죄두려움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주요한 요인 모두 지하철 내 여성의 성범죄두려움과 관계가 있으며 또한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여성, 서울 지하철, 성범죄, 범죄두려움, 성범죄두려움

I. 서론

형사사법 분야에 있어서는 주로 범법자들만이 관심의 대상이었고 범죄의 또 다른 당사자인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가로팔로와 라울(Garofalo and Laub)은 우리 사회의 범죄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범죄발생장소의 사회적 구성,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Garofalo and Laub, 1978: 242; 이윤호, 1990: 239).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범죄현상의 일방인 피해자에 관한 현실적 고려나 학문적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발생한 범죄의 실제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일반시민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연구결과들이 보고 되고 있다.

범죄가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비교적 흔하지 않은 경험이지만 범죄두려움(fear of crime)은 일반인들 사이에 널리 확산되어 있다. 범죄두려움이란 범죄에 대한 불안감, 공포심으로, 이는 사회성원들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된다. 범죄두려움은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정신건강에 위협이 되는 것 이외에 외출을 꺼리게 되는 등의 사회구성원들의 활동에 제약을 가져오며, 지역이기주의나 심지어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불신감을 조장, 급기야는 사회해체를 가져오므로써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범죄두려움으로 인해 각종 보안장치의 설치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부담이 증가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실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범죄두려움에 대한 대책은 범죄 못지않게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이성식, 2000b: 133-134).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처음으로 문제시된 것은 1967년 미국의 ‘법집행 및 사법행정에 관한 대통령 위원회’에 소속된 연구진들에 의해서였으며, 이들이 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첫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범죄자체와는 독립되어 있다는 점이었고, 둘째는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되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범죄 또는 범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대한 두려움은 분석적으로는 별개의 것이므로 별도의 차원에서 연구대처되어야 하며, 만약 사회 전반에 걸쳐 범죄의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만연한다면 그에 따른 여파가 국민생활의 불안감, 낯선 사람들에 대한 불신 등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곧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여 결국 공동체의 안전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던 것이다(박정선, 1991: 28).

이와 더불어 범죄의 연구에 있어서 최근에는 가해자 연구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연구도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았으며, 잠재적 피해자에게까지 영역을 확장하여 범

죄의 두려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범죄의 두려움을 줄이는 것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며, 범죄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로 객관적인 지표인 범죄율을 이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범죄율과 함께 범죄의 두려움과 같은 지표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범죄두려움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원인을 밝히려는 경험연구가 계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즉 시민들이 왜 두려워하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에서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여성의 두려움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최근에 서울의 지하철전동차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유형을 보면, 강도, 치기절도, 폭력, 성폭력인데, 지난 2002년도 공식통계자료에 의하면 치기절도와 성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강도의 비중은 낮았는데, 이는 피해조사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하철 범죄의 가장 주요한 유형은 이 성폭력범죄와 치기절도범죄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황지태, 2003: 16).

이 연구에서는 지하철 내 여성의 성범죄두려움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지하철 내 여성의 성범죄두려움에 대해서 분석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수행하고자 하는 여성이 인식하는 성범죄두려움에 대한 조사는 국내에서 한번도 수행된 적이 없으며, 범죄두려움 중에서도 여성의 성범죄두려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여성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오늘날 대중교통의 중심이 되는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 여성들이 인식하는 두려움에 대한 연구는 향후 지하철 내 對여성 성범죄와 성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입안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1. 지하철 범죄 및 성범죄 의의

1) 지하철 범죄의 정의

‘지하철 범죄’라는 용어는 법률상 혹은 학문적으로 확립된 용어가 아니라 지하

철이라는 교통수단의 등장에 따라 그곳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통칭할 실무상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일종의 신조어로서 영어로는 subway crime 혹은 crime on the subways에 해당한다. 지하철 범죄를 일응 “지하철이라는 운송수단 및 이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에서 발생한 범죄”라고 정의하고 그 개념요소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지하철 범죄는 범죄이어야 한다. 지하철 범죄라고 하여 기존의 범죄 개념이 확장 또는 축소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라고 해도 형법상 범죄가 아닌 한 지하철 범죄도 될 수 없다. 둘째, 지하철 범죄는 발생장소가 지하철 및 이를 이용하기 위한 부속시설이어야 한다. 이 시설은 전동차, 역사, 그리고 역에 따라서는 부속 주차장이 포함될 것이고, 역사는 다시 지상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출입구, 전동차를 기다려 타고 내리는 승강장, 그리고 출입구와 승강장을 연결하는 통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장소적 요소가 지하철 범죄의 중심적 개념요소라 할 수 있다(황지태, 2003: 13).

2) 성범죄의 정의

성범죄에 대한 법적 통제는 각 나라마다 법체계가 다르고 대체적으로 육체적 성행위, 공연음란, 비정상적 성행위 등과 같은 모호한 용어로서 법령에서 언급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범죄를 분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이상현, 2004: 237). 이러한 성범죄는 성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범죄로 형법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를 비롯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경범죄처벌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 특별법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라고 하면 우선 법률적 정의로서 우리나라 「형법」 제297조의 강간과 제298조 강제추행을 살펴볼 수 있다. 「형법」 제297조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 제298조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강제추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는 폭력행위를 수반하기 때문에 성폭력으로 표현되기도 한다.¹⁾

1) 성폭력행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서는 우선,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大判 1995.1.12 94도2781)”라고 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

미야자와 고이치는 성범죄와 관련된 주제에는 가장 고전적 주제인 강간부터 시작하여, 유아·아동에 대한 성적 공격, 성추행, 스토킹이 포함된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일본에서 강간 등 성적 공격에 대해 폭행 또는 난폭이라는 용어가 성적 공격을 당한 피해자를 고려한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유아기·아동기·사춘기·성년기를 가리지 않고, 아는 사람·타인으로부터의 공격에 상관없이 생각도 못한 기회에 성적 공격을 받은 피해 여성의 트라우마(Trauma : 심적 외상)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비난과 비판을 가해 ‘인격에 대한 성적인 침해’로서 ‘성적 공격’이라는 용어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宮澤浩一, 장규원 역, 1999: 176). 이렇듯 성폭력이라는 개념에는 다양한 형태의 성적 공격행위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또는 성폭력이라 함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하는 행위 및 성행위를 유발시키는 선정적 언어로 유인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여성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분석 자료에 의하면 성폭력의 피해를 보고한 여성들은 손을 잡거나 신체의 일부분을 만지는 등의 비교적 경미한 신체접촉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한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성적으로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말 또는 욕설을 듣는 경우, 누군가로부터 음란전화를 받아본 경우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성폭력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성기를 손으로 만지거나 강제로 성행위를 시도하거나 성행위를 당하는 피해를 경험하였다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박순진·최영신, 1999: 159-161).

3) 지하철 내 성범죄의 특징

성폭력 또한 본래 법률적 용어라기보다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유래한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실제 지하철 범죄의 유형으로서의 성폭력은 거의 전부가 주로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지칭한다.²⁾ 지난 2000년 지하철 범죄의 발생건수는 총 1,857건 중 절도가 1,077건(58%)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타 361건(19%), 폭력이 250건(13%), 성폭력이 149건(8%)로 성폭력의 빈도는 낮았으나 최근 2005년 지하철 범죄의 발생건수는 1월 ~ 6월까지 총 801건 중 폭력 253건(32%)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성폭력이 218건(27%), 기타 191건(24%), 절도 132건(16%) 등으로 성폭력의 발생 빈도가

1) 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大判 2002.4.26 2001도2417)” 라고 하여 폭력행위에 대한 범위를 밝히고 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3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급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국회, 2005: 186-187).

이러한 성폭력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로는 우선, 지하철 내 성폭력은 암수범죄가 많다는 점이다. 성추행의 피해자인 여성은 참을 수 없는 불쾌감을 느끼지만, 이를 퇴치하기 위해 현장에서 단호한 태도를 취한다든지 사후적으로 신고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신고한 뒤의 가해자 처벌 절차에 연루되기를 꺼리거나, 더 큰 망신이나 보복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 상당한 각오가 필요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다음으로 각종 여성단체들이 이 문제의 고발과 해결방안의 제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적어도 성추행을 사회문제로 인식시키는데 성공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아직도 실효성이나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여성단체의 거듭된 요청에 의해서 전동차에 이른바 여성전용칸이 탄생했는가 하면 성폭력 특별법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처벌규정이 포함되었고, 처벌 경고방송을 주기적으로 내보내기도 하였다(황지태, 2003: 19).

성추행범 중에는 전문직 종사자들도 있을 정도로 성추행범의 계층은 다양한데 이들은 타고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여러 여성을 추행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또한 지하철내 성추행의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범인이 여성의 뒤에 서서 입김을 내뿜는 경우에서부터, 여성의 둔부에 밀착하는 경우, 좌석에 앉아 옆자리 여성의 다리 위에 손을 슬쩍 올려놓는 경우, 술취한 척 또는 자는 척 하면서 몸을 심하게 기대는 경우, 움직이면서 팔이나 손으로 가슴 등을 스치는 경우, 심지어는 갑자기 성기를 노출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한다. 성추행 행위에 대한 대책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제복을 입고 전동차에 승차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무언의 경고를 보내는 것일 뿐, 실제 공익근무요원은 제복 차림이어서 신분이 노출되어 있고 범죄자 적발기술도 없기 때문에 검거실적은 전무하다. 결국 성추행범 적발과 체포도 지하철 수사대가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성추행 행위에 대해 초범은 불구속으로 처리하지만, 2회 이상 적발된 성추행범은 상습범으로 보아 전원 구속수사를 하고 있다.³⁾

2. 여성의 범죄두려움의 의의

1) 범죄두려움의 정의 및 원인

지금까지 범죄에 대한 두려움(fear of crime)은 매우 다양하게 개념화 되어왔다. 대다수의 경험적 연구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조작적 정의를 대체로 자신이 특정

3) 성추행범은 대개 약식기소절차를 통해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례적으로 징역 2월의 실형이 선고된 예도 있다.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의 추정이나 범죄에 대한, 또는 안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의 추정으로 개념화하였다(이윤호, 1989: 154-155). ‘두렵다’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① 마음에 꺼려 무섭다, ② 염려가 되다, ③ 위풍이 있어 송구한 느낌이다라는 세 가지 의미가 있으나 이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인 ‘무섭다’의 의미와 ‘염려된다’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뉘질 수 있다. Garofalo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차원을 실제로 개인이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어 범죄와 맞부딪혔을 때 느끼는 감정인 실제적 두려움과 실제로 상황을 마음속으로 그리며 가상적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인 잠재적 두려움으로 구분하였으며, Furstenburg도 두려움의 종류를 거리 등에서 실제로 의심스러운 사람과 대면 시에 느끼게 되는 감정으로서 두려움과 신문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자주 나타나는 범죄에 대한 이슈 등을 접하고서 느끼게 되는 불안감으로서 일반적 두려움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박정선, 1991: 28-29).

이렇듯 범죄에 대한 두려움 혹은 공포란 특정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데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일컫는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으며(이윤호, 1990: 243), 보편적으로 시민이 느끼는바 자신이 특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나 가능성에 대한 추정 또는 범죄나 안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의 추정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여기서 전자의 특정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의 추정을 “specific fear” 또는 “concrete fear”라고 하며, 후자의 범죄와 안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의 추정을 “homeless fear” 또는 “generalized fear”라고 한다. 하지만 어떠한 형태이든 범죄에 대한 공포는 자신이 범죄 피해자가 될 확률을 추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자신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것에 대한 불안과 걱정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 것이다(박철현, 2005: 53).

또한 범죄의 두려움은 위험성에 대한 지각(perceived risk), 우려(concern), 걱정(anxiety), 불안(un-safety)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개념으로 혼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피해자가 될 위험성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최인섭·김지선, 1997). 결국 범죄에 대한 두려움 혹은 공포는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에 대한 불안과 걱정의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범죄를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갖는 것은 자신이 범죄피해자가 될 가능성과 확률에 관한 감정적인 공포라고 이해할 수 있다(이윤호, 1996: 107).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범죄의 두려움을 범죄나 범죄와 관련된 상징에 의해 범죄피해의 위험성을 인식함으로써 야기되는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범죄의 두려움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크게 감정적 요소들에 관한 연구와 평가적 측정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주희중, 1996: 93-100), 평가적 측정에 관한 연구는 주로 범죄의 두려움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이다. 즉, 범죄

의 두려움에 하위차원을 찾는 연구인 것이다. 또한 감정적 요소들에 관한 연구는 어떤 대상이나 상황이 어떤 사람들에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게 하는가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이다. 이에 관한 연구는 크게 피해경험적 접근(victimization perspective)과 사회통제적 접근(social control perspective)으로 구분할 수 있다(Gate-Rohe, 1987). 이 두 가지 시각 중, 사회통제적 시각은 다시 몇 가지 시각으로 분류된다. 피셔와 그의 동료들(Fisher et al., 1995)의 분류에 따르면, 피해모델(victimization model) 외에 사회적·물리적·무질서 모델(social and physical disorders model), 이웃통합 모델(neighborhood integration model), 그리고 공식적 사회통제모델(formal social control model)의 네 가지 모델을 제시한다.⁴⁾ 이중 피해모델을 제시한 나머지 세 가지는 사회통제적 시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2) 여성의 성범죄두려움에 대한 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범죄유형별로 범죄두려움의 정도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주희중, 1999: 92), 범죄두려움에 관한 여러 유형 중에서 여성의 성범죄의 두려움의 실체에 대해서 밝혀본다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범죄 두려움은 성별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조은경, 2003: 19), 이러한 성별에 따른 두려움의 차이는 부모가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도 자녀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김지선, 2004b: 48-49).

특히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남성과는 다르게 다양한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남성의 범죄피해의 경험이 여성 보다 월등히 높지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다고 하며(Balkin, 1979; Brown, et al., 1984; Clemente-Kleiman, 1977; Dubow, 1979; Riger-Gordon, 1981), 그러한 범죄두려움의 대상 중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은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기 쉽기 때문에(Ledray, 1986), 성범죄 중 강간은 여성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으로 다가온다(Riger and Gordon, 1981). 이렇듯 선행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여성의 범죄두려움은 대부분 성적인 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Warr, 1984; Ferraro, 1995, 1996).

3. 선행연구의 검토

여성들은 공공장소에서 남성과는 다르게 다양한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통계자료에

4) 이와 유사한 분류로 테일러와 헤일(Taylor-hale, 1986)은 무질서 모델, 지역사회 염려모델, 간접적피해모델로 분류하고 있다.

의하면 남성의 범죄피해의 경험이 여성 보다 월등히 높지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다고 하며(Balkin, 1979; Brown, et al., 1984; Clemente-Kleiman, 1977; Dubow, 1979; Riger-Gordon, 1981), 그러한 범죄두려움의 대상 중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기 쉽기 때문에(Ledray, 1986), 성범죄 중 강간은 여성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으로 다가온다(Riger-and Gordon, 1981). 이렇듯 선행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여성의 범죄두려움은 대부분 성적인 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Warr, 1984; Ferraro, 1995, 1996).

Robbie(2005)는 성별, 범죄의 두려움과 사회적 응답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성별과는 상관이 없고, 전통적인 사회적인 성역할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남성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만 이러한 두려움을 억압해야한다는 압박감으로 인하여 표현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은 겉보기에 허세를 통해서 여성보다 두려움을 더 적게 느끼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두려움과 성별과의 관계에서 국내에서 실시된 조은경(2003)의 연구에서는 범죄두려움은 성별에 의해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은경, 2003: 19).

이윤호(1996)는 한국여성의 범죄에 대한 공포에 대한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범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특히 성범죄라는 특수한 범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보았다. 직접 피해를 입은 범죄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있지만, 직접 겪지 않고 언론의 보도나 다른 사람의 범죄피해경험의 인지를 통한 두려움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일상 생활에서 매일같이 겪게 되는 객관적인 위협성이 남성들에 비해 더 많은 공포를 갖게 할 수도 있다. 이처럼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은 객관적 위협을 겪게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아직도 차별 받고 있고 열등한 처우를 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더불어 남성에게는 없지만 여성에게는 가장 위험하고 그 폐해가 심각한 강간이라는 범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더 범죄를 두려워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처럼 여성들에게만 존재하는 강간범죄는 여성의 정조나 처녀성을 상대적으로 더 높이 평가하고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는 더욱 여성들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 여성의 성범죄피해경험과 성범죄두려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성용은(2005)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평소에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사소한 성적괴롭힘을 포함한 성범죄피해경험은 여성의 성범죄두려움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여성이 실제로는 남성에 비해 범죄피해의 경험이 적을 수 있지만 범죄두

려움을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여성이 주로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성적괴롭힘을 포함한 성범죄피해경험은 여성의 성범죄두려움에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용은, 2005: 174).

Ⅲ. 연구설계

1. 연구가설

이 연구에서는 서울 지하철 내 여성의 성범죄두려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여성의 평소 옷차림이나 범죄관련 정보 습득의 정도 그리고 범죄에 대한 인식 등이 성범죄두려움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여성이 평소 화려한 옷차림, 짧은 치마나 바지, 눈에 띄는 화려한 액세서리를 하는 여성일수록 지하철 내 성범죄두려움을 보다 많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평소 범죄관련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범죄정보를 습득하고 서로 공유하는 비율이 높은 여성일수록 지하철 내 성범죄두려움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철 내 성범죄 이외의 다른 범죄들이 심각하다고 인식 할수록 지하철 내 성범죄 발생도 많고 그 두려움도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상에서 논의한 이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과제와 이에 따른 세부적인 연구가설은 아래와 같다.

연구과제 I. 지하철 이용 및 옷차림 등의 실태

- I-1. 조사대상 여성의 지하철 이용실태는 어떠한가?
- I-2. 조사대상 지하철 이용 여성의 평소 옷차림은 어떠한가?

연구과제 II. 범죄정보에 대한 관심과 범죄에 대한 인식

- II-1. 범죄정보 습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II-2. 범죄정보에 대한 관심은 어떠한가?
- II-3.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과제 III. 지하철 내 성범죄두려움의 특성 분석

- III-1. 지하철 성범죄를 인식하는 정도는 어떠한가?
- III-2. 지하철 내 성범죄두려움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I-3. 지하철 성범죄의 유형별로 범죄두려움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과제 IV. 평소 옷차림 및 범죄정보 관심정도, 범죄에 대한 인식과 성범죄두려움의 관계

IV-1. 평소 화려한 옷차림을 선호하는 여성일수록 성범죄두려움은 높을 것이다.

IV-2. 범죄정보에 관심이 많은 여성일수록 성범죄두려움은 높을 것이다.

IV-3. 일반적인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고 인식하는 여성일수록 성범죄두려움이 높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가설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하철 내 여성의 성범죄두려움을 분석하고 그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성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그러한 원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지하철 내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 중에서도 성범죄에 대해서 관련 기관 보다 많은 관심과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방법 및 변인의 측정

1) 연구방법

이 연구는 이론적 접근과 실증적 접근으로 나누어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이론적인 접근으로는 국내외 관련 선행 연구문헌과 실증결과의 분석을 근간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인 접근으로는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여성의 지하철 내 성범죄두려움에 대해서 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방법을 통한 양적인 연구방법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실의 발견을 위한 양적인 연구방법으로서 현실 분석적이며, 기술적인 연구방법과 실증적 연구방법을 병행해서 사용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서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제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설문지를 사용해서 조사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계량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자기기입식으로 구성하여 대부분의 주요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SPSS12.0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는 우선 1차적으로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여대생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구성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설문지를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이 연구를 위한 조사는 2006년 5월 12일부터 17일까지 약 1주일 동안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대학원생들을 조사원으로 하여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배부된 설문지 520부 중 불성실한 설문 11부를 제외한 509부를 최종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2) 변인측정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개념에서 ‘범죄’란 소매치기와 같은 경범죄로부터 강도강간이나 살인과 같은 중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유형을 포괄하고 있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그러나 우리는 상식적으로 버스 안에서 지갑을 소매치기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것과 밤중에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외진 곳에서 강간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그 수준과 정도에 있어서 매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범죄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최인섭·김지선, 1997: 80), 범죄에 대한 공포를 조작적으로 측정하는 일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로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범죄유형별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주희중, 1999: 92).

이 연구에서는 성범죄두려움에 성적괴롭힘의 두려움을 포함하였다. 성적괴롭힘에는 언어적괴롭힘(예 : 음란한 농담이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언급 등), 시각적 성적괴롭힘(예 : 외설적인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과 함께 신체적 성적괴롭힘을 포함하는데, 신체적 성적괴롭힘이란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비해서 비교적 가벼운 신체적 접촉을 지칭한다(김지선, 2004).

이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다룰 지하철 내 성범죄두려움 변인들의 측정을 위해서 우선 성적괴롭힘 두려움을 신체적·언어적·시각적 괴롭힘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는데 “손을 잡거나 신체의 일부분을 만질까봐 두렵다”, “뒤에서 껴안거나 몸을 뒤로 밀착시킬까봐 두렵다”, “몸을 강제로 밀착시키고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질까봐 두렵다”의 다섯 문항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그저그렇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의 다섯 항목에 응답토록 하였다(alpha = .867). 여기에 “강제로 키스를 당할까봐 두렵다”, “성기를 손으로 만질까봐 두렵다”, “강제로 성행위를 당할까봐 두렵다”의 다소 심각한 성범죄두려움의 정도 문항을 위와 같이 5점 척도로 응답토록 하여 이 전부를 신체적인 성범죄두려움의 변인으로 조작화 하였다(alpha = .918). 또한 언어적 괴롭힘 두려움은 “성적으로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말, 욕을 들을까봐 두렵다”로, 시각적 괴롭힘 두려움은 “내 앞에서 성기

를 노출시킨 채 서 있을까봐 두렵다”로 변인을 조작화하여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그저그렇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의 다섯 항목에 응답토록 하였다.

독립변인들로 우선 조사대상 여성의 특성으로서 평소 옷 등의 차림새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옷차림 선호도는 “수수한 것 보다는 화려한 옷차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바지 보다는 치마를 자주 입는 경우가 많다”, “바지나 치마를 입을 경우 짧은 바지나 치마를 입는 경우가 많다”, “눈에 띄는 화려한 액세서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등의 네 문항을 사용하고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그저그렇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의 다섯 항목에 응답토록 하였다(alpha = .845). 다음으로 조사대상 여성의 평소 범죄정보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측정하기 위해서 “이웃사람들, 친구들 또는 직장동료와 대화할 때 범죄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한다”, “TV나 라디오, 신문 등에서 접할 수 있는 범죄사건에 대한 뉴스나 소식에 관심을 가진다”, “범죄사건을 소재로 한 방송프로그램을 자주 본다”의 네 항목을 사용하고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그저그렇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의 다섯 항목에 응답토록 하였다(alpha = .737).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최근 몇 년 동안 전체범죄가 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지하철 내 범죄가 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지하철 내 성범죄가 늘었다”의 세 항목을 사용하고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그저그렇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의 다섯 항목에 응답토록 하였다(alpha = .807).

IV.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표Ⅳ -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우선 연령의 경우 20대가 367명으로 72.1%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대가 86명(16.9%), 10대 31명(6.1%), 40대 12명(2.4%), 50대 이상 13명(2.6%)이었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이 207명(40.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122명(24.0%), 전문대 졸업 121명(23.8%), 중학교 졸업 이하, 대학원 이상이 각각 30명(5.9%), 29명(5.7%)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미혼자가 392명(77.0%)이었으며 기혼자는 117명(23.0%)이었다.

〈표Ⅳ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 도	유효퍼센트(%)
연 령	10대	31	6.1
	20대	367	72.1
	30대	86	16.9
	40대	12	2.4
	50대이상	13	2.6
	합 계	509	100.0
학 력	중학교 졸업 이하	30	5.9
	고등학교 졸업	122	24.0
	전문대 졸업	121	23.8
	4년제 대학 졸업	207	40.7
	대학원 이상	29	5.7
	합계	509	100.0
결혼유무	미 혼	392	77.0
	기 혼	117	23.0
	합 계	509	100.0
직 업	전문/기술	29	5.7
	행정/관리	42	8.3
	사 무	100	19.6
	판 매	40	7.9
	서비스	81	15.9
	농/어업	6	1.2
	생산직	4	0.8
	학 생	144	28.3
	주 부	41	8.1
	무 직	22	4.3
	합 계	509	100.0
가족수입	100만원 이하	37	7.3
	101-200만원	71	13.9
	201-300만원	164	32.2
	301-500만원	172	33.8
	500만원 이상	65	12.8
	합계	509	100.0
주택소유현황	자 가	289	56.8
	전 세	169	33.2
	월 세	43	8.4
	기 타	8	1.6
	합 계	509	100.0

조사대상자의 직업 현황을 보면, 학생이 144명(28.3%)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사무직 100명(19.6%), 서비스직 81명(15.9%), 행정/관리직 42명(8.3%), 주부 41명(4.3%), 판매 40명(7.9%), 전문/기술직 29명(5.7%), 무직 22명(4.3%), 농/어업 6명(1.2%), 생산직 4명(0.8%)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자의 가족수입은 301-500만원 이하가 172명(33.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1-300만원

이하가 164명(32.2%)로 나타났다. 101-200만원 미만이 71명(13.9%), 500만원 이상 65명(12.8%), 100만원 이하 37명(7.3%)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여성들의 주택소유형태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부모의 집을 포함한 자기집(자가)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289명(56.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세 169명(33.2%), 월세 43명(8.4%), 기타 8명(1.6%)의 순서로 나타났다.

2. 분석결과와 논의

1) 지하철 이용 및 옷차림새 등 실태

(1) 지하철 이용 실태

〈표Ⅳ - 2〉는 조사대상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 노선, 이용 빈도 및 시간대의 분포를 나타낸 표이다.

〈표Ⅳ - 2〉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 노선, 이용 빈도 및 시간대

	구 분	빈 도	유효 퍼센트(%)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 노선	1호선	47	9.2
	2호선	149	29.3
	3호선	99	19.4
	4호선	103	20.2
	5호선	56	11.0
	6호선	28	5.5
	7호선	6	1.2
	8호선	9	1.8
	분당선	12	2.4
	합계	509	100.0
주로 이용하는 빈도	1일2회 미만	101	19.8
	1일2회	263	51.7
	1일3회 이상	145	28.5
	합계	509	100.0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	새벽 혹은 심야시간	12	2.4
	일반적인 출/퇴근 통학시간	385	75.6
	출근시간 직후 오전시간대	78	15.3
	퇴근시간 직후 저녁시간대	34	6.7
	합 계	509	100.0

우선 조사대상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 노선은 2호선이 149명(29.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호선 103명(20.2%)이었다. 다음으로 3호선 99명(19.4%), 5호선 56명(11.0%), 1호선(1호선 연장 국철 포함) 이용자가 47명(9.2%), 6호선 28명(5.5%), 분당선 12명(2.4%), 8호선 9명(1.8%), 7호선 6명(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분포는 각 노선의 정확한 이용자 분포는 아니지만, 지하철 역수에 비례하는 수치들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자들의 지하철 이용 빈도는 먼저 1일 2회 정도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가 263명(51.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일 3회 이상이 145명(28.5%), 1일 2회 미만 즉, 2, 3일에 한두번 정도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01명(19.8%)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지하철 이용 시간대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출퇴근의 통학 시간대(7-9시경)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조사대상자가 전체 509명 중 385명(75.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출근시간 직후 오전시간대(10-12시경) 78명(15.3%), 퇴근시간 직후 저녁시간대(18-19시경) 34명(6.7%), 새벽 혹은 심야시간대(5-6시경, 23-1시경) 12명(2.4%)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옷차림 등 실태

<표Ⅳ - 3>은 조사대상자들의 지하철 이용 시 옷차림새 등과 관련된 사항을 질문한 것을 나타낸 표이다. 우선, 지하철 이용 시 평소 옷차림새와 관련된 것으로 평소

<표Ⅳ - 3> 조사대상자의 옷차림새

구 분		빈 도	유효 퍼센트(%)
화려한 옷차림 선호 여부	전혀 아님	32	6.3
	안 그런 편	119	23.4
	보 통	194	38.1
	약간 그런 편	153	30.1
	매우 그런 편	11	2.2
	합 계	509	100.0
바지보다는 치마 선호 여부	전혀 아님	38	7.5
	안 그런 편	113	22.2
	보 통	194	38.1
	약간 그런 편	144	28.3
	매우 그런 편	20	3.9
	합 계	509	100.0
짧은 바지나 치마 선호 여부	전혀 아님	45	8.8
	안 그런 편	141	27.7
	보 통	184	36.1
	약간 그런 편	132	25.9
	매우 그런 편	7	1.4
	합 계	509	100.0
화려한 액세서리 착용 여부	전혀 아님	38	7.5
	안 그런 편	135	26.5
	보 통	212	41.7
	약간 그런 편	100	19.6
	매우 그런 편	24	4.7
	합 계	509	100.0

수수한 것 보다는 화려한 옷차림을 선호는 경우 보통이 194명(38.1%)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평소 화려한 옷차림을 선호한다고 조사대상자는 164명(32.3%),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가 151명(29.7%)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자들이 평소 바지보다는 치마를 입는 것과 관련해서 평소 바지 보다는 치마를 자주 입는지의 질문에 대해서 보통 194명(38.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바지보다는 치마를 선호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164명(32.1%), 바지보다는 치마를 선호하는 편이 아니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151명(29.7%)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가 바지나 치마를 입을 경우 다소 짧은 바지나 치마를 입는 것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84명(36.1%)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바지나 치마를 입을 경우 짧은 것을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86명(36.5%), 짧은 바지나 치마를 선호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39명(27.3%)의 경우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평소 차림새 중 눈에 띄는 화려한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것에 관련된 것을 나타낸 분포표이다. 평소 눈에 띄는 화려한 액세서리를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12명(41.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화려한 액세서리를 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73명(34%), 화려한 액세서리를 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여성은 전체 응답자 509명 중 124명(24.3%)으로 나타났다.

2) 범죄정보 습득과 범죄에 대한 인식

<표Ⅳ - 4>는 조사대상자가 범죄사건에 대한 정보나 소식을 듣는 수단을 나타낸 것이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범죄사건에 대한 정보나 소식을 듣는다고 응답한 여성이 전체 응답자 509명 중 173명(34.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친구로부터 범죄사건에 대한 정보나 소식을 듣는다고 응답한 여성은 113명(22.2%), 신문 84명(16.5%), 인터넷 68명(13.4%), 이웃 30명(5.9%), 가족 21명(4.1%), 라디오 15명(2.9%),

<표Ⅳ - 4> 범죄사건에 대한 정보나 소식을 듣는 수단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가족	21	4.1
친구	113	22.2
이웃	30	5.9
신문	84	16.5
텔레비전	173	34.0
라디오	15	2.9
잡지	4	0.8
인터넷	68	13.4
기타	1	0.2
합계	509	100.0

잡지 4명(0.8%), 기타 1명(0.2%)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대상자들 중 34%의 여성이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범죄사건에 대한 정보나 소식을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는 일반적인 범죄사건 정보의 습득 수단으로 생각된다. 또한 급속하게 증가된 인터넷 사용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인터넷 웹서핑이나 인터넷 뉴스를 통한 범죄사건의 정보나 소식을 듣는 경우도 13.4%로 나타났다.

<표Ⅳ - 5>는 조사대상자들 중 주변의 이웃사람들, 친구들 또는 직장동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범죄사건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 정도에 대해서 나타낸 표이다. 주변 사람들과 범죄사건에 대해서 가끔 혹은 자주 대화를 나눈다고 응답한 여성은 전체 509명 중 311명(61.1%)으로 조사대상자의 약 60%이상이 주변 이웃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범죄사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죄사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고 응답한 여성은 198명(38.9%)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 여성 총 509명 중 311명(61.1%)이 평소에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범죄사건에 대한 내용을 소재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 - 5> 범죄사건에 대한 대화 나누는 정도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전혀하지않는다	28	5.5
거의하지않는다	170	33.4
가끔한다	278	54.6
자주한다	33	6.5
합계	509	100.0

<표Ⅳ - 6>은 조사대상자가 TV나 라디오, 신문 등 매스미디어에서 보도되는 범죄사건에 대한 뉴스나 소식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질문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조사대상 여성 총 509명 중 범죄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성은 294명(57.8%)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도 60명(11.8%)이나 되었다. 또한 범죄사건에 대한 뉴스나 소식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여성은 213명(42.3%)로 나타났다.

<표Ⅳ - 6> 범죄사건에 대한 뉴스나 소식의 관심 유무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전혀관심이없다	39	7.7
거의관심이없다	176	34.6
약간 관심이있다	234	46.0
매우관심이있다	60	11.8
합계	509	100.0

〈표Ⅳ - 7〉은 조사대상자가 TV나 라디오, 신문 등 매스미디어에서 보도되는 범죄 사건보도 이외에 범죄사건을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예: 경찰청 사람들, 형사 등)을 얼마나 자주 시청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한달에 한번미만 정도 시청한다고 응답한 여성이 231명(4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달에 한번정도 시청이 164명(32.2%), 2-3주에 한번 정도 56명(11.0%), 한번도 시청한 적이 없음이 48명(9.4%), 매주 시청 10명(2.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Ⅳ - 7〉 범죄사건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 시청 정도

구 분	빈 도	유효 퍼센트(%)
한번도본적이없다	48	9.4
한달에 한번미만	231	45.4
한달에 한번정도	164	32.2
2-3주에 한번정도	56	11.0
매 주	10	2.0
합 계	509	100.0

〈표Ⅳ - 8〉은 조사대상자가 인식하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질문한 것을 요약한 표이다. 조사대상자 총 509명 중 최근 우리나라에서 범죄가 늘어난 편이라고 응답한 여성은 279명(54.8%)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크게 늘었다고 응답한 여성도 34명(6.7%)이나 되었다. 또한 최근 범죄가 늘지도 줄지도 않았다고 응답한 여성은 201명(39.5%)으로 나타났으며,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여성은 29명(5.7%)으로 나타났다.

〈표Ⅳ - 8〉 최근 우리나라 범죄에 대한 인식

구 분	빈 도	유효 퍼센트(%)
크게줄었다	5	1.0
줄어든편이다	24	4.7
늘지도줄지도않았다	201	39.5
늘어난편이다	245	48.1
크게늘었다	34	6.7
합 계	509	100.0

〈표Ⅳ - 9〉는 조사대상자가 인식하는 최근 우리나라 지하철 범죄에 대해서 질문한 것을 요약한 표이다. 조사대상자 총 509명 중 최근 우리나라 지하철 범죄가 늘어난 편이라고 응답한 여성은 223명(43.6%)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크게 늘었다고 응답한 여성도 25명(4.9%)이었다. 또한 최근 지하철 범죄가 늘지도 줄지도 않았다고 응답한 여성은 245명(48.1%)으로 나타났으며,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여성은 42명

(8.3%)으로 나타났다.

〈표Ⅳ - 9〉 최근 우리나라 지하철 범죄에 대한 인식

구 분	빈 도	유효 퍼센트(%)
크게 줄었다	10	2.0
줄어든편이다	32	6.3
늘지도줄지도않았다	245	48.1
늘어난편이다	197	38.7
크게 늘었다	25	4.9
합 계	509	100.0

〈표Ⅳ - 10〉은 조사대상자가 인식하는 최근 우리나라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서 질문한 것을 요약한 표이다. 조사대상자 총 509명 중 최근 우리나라 지하철 내 성범죄가 늘어난 편이라고 응답한 여성은 215명(42.1%)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크게 늘었다고 응답한 여성도 20명(3.9%)이었다. 또한 최근 지하철 범죄가 늘지도 줄지도 않았다고 응답한 여성은 246명(48.3%)으로 나타났으며,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여성은 48명(9.5%)으로 나타났다.

〈표Ⅳ - 10〉 최근 우리나라 지하철 내 성범죄에 대한 인식

구 분	빈 도	유효 퍼센트(%)
크게 줄었다	8	1.6
줄어든편이다	40	7.9
늘지도줄지도않았다	246	48.3
늘어난편이다	195	38.3
크게 늘었다	20	3.9
합 계	509	100.0

3) 지하철 내 성범죄두려움의 특성 분석

〈표Ⅳ - 11〉은 조사대상자들의 현재 지하철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것을 나타낸 분포표이다. 평소에 지하철 성범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보통이라고 응답한 여성은 전체 응답자 509명 중 234명(46%)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지하철 성범죄가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한 여성은 163명(33%), 지하철 성범죄가 심각하다고 인식한 여성은 112명(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지하철 내 성범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여성은 전체 응답자 509명 중 112명(22%)으로 약 5명 중 1명의 여성이 지하철 내 성범죄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지하철 내 성범죄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표Ⅳ - 11〉 지하철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구 분	빈 도	유효 퍼센트(%)
전혀 심각하지 않다	20	3.9
심각하지 않다	143	28.1
보통이다	234	46.0
조금 심각하다	88	17.3
매우 심각하다	24	4.7
합 계	509	100.0

〈표Ⅳ - 12〉는 조사대상 여성의 지하철 내 성범죄두려움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지하철 내 성범죄두려움이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F검정을 통해서

〈표Ⅳ - 12〉 개인특성에 따른 지하철 내 성범죄두려움 차이 분석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확률	
연 령	10대	2.9290	.73357	6.435	.000***
	20대	2.8136	.89813		
	30대	2.6477	.90160		
	40대	2.0833	.96656		
	50대이상	1.8000	.89350		
학 령	중학교 졸업 이하	2.5367	.73357	1.562	.183
	고등학교 졸업	2.8352	.89813		
	전문대 졸업	2.8628	.90160		
	4년제 대학 졸업	2.6729	.96656		
결혼유무	대학원 이상	2.6828	.89350	1.797	.073
	미 혼	2.7890	.88806		
직 업	기 혼	2.6171	.97267	1.398	.186
	전문/기술	3.0310	.80049		
	행정/관리	2.7952	.82372		
	사 무	2.6450	.81431		
	판 매	2.6425	.94024		
	서비스	2.6370	.86724		
	농/어업	2.2333	1.24365		
	생산직	2.7500	.97125		
	학 생	2.8639	.94563		
가족수입	주 부	2.8829	.97875	3.382	.010**
	무 직	2.5182	1.14669		
	100만원 이하	2.8108	1.01346		
	101-200만원	2.4211	.90205		
	201-300만원	2.7189	.77337		
주택소유현황	301-500만원	2.8424	.94151	5.213	.001***
	500만원 이상	2.9046	1.02140		
	자 가	2.6924	.90278		
	전 세	2.9308	.89270		
	월 세	2.5628	.84092		
	기 타	1.9875	1.18495		

** p < .01, *** p<.001

살펴본 것이다. 각 질문은 “전혀두렵지않다” 1점에서 “매우두렵다” 5점으로 배점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자의 개인특성에 따라 지하철 내 성범죄두려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연령에 따른 지하철 내 성범죄두려움의 정도를 분석하여 보면 20대가 2.81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대 이상이 1.800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분산분석의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즉 조사대상 여성의 연령과 지하철 내 성범죄두려움의 분산분석 결과, F값이 6.435, F값의 유의확률이 .000으로 유의확률 0.00%내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에 있어서 30대 이하의 비교적 젊은 여성이 40대 이상의 나이든 여성보다 지하철 내에서 더 많은 성범죄 피해의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학력에 따른 지하철 내 성범죄두려움 정도를 살펴보면, 전문대 졸업이 2.8628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졸업 이하는 2.5367로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고등학교 및 전문대를 졸업한 비교적 젊은 여성들이 중학교 졸업 이하의 비교적 나이든 여성들 보다 지하철 내 성범죄두려움이 더욱 높은 것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결혼유무에 따른 지하철 내 성범죄두려움의 정도를 살펴보면, 미혼여성이 2.7890으로 기혼여성 2.6171보다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조사대상 여성의 직업에 따른 지하철 내 성범죄두려움의 정도를 분석하여 보면 전문/기술직이 3.031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어업직이 2.2333으로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조사대상 여성의 가족수입에 따른 지하철 내 성범죄두려움의 정도를 살펴보면,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정의 여성이 2.90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1-2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정의 여성이 2.421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분산분석의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즉 조사대상 여성의 가족수입과 성범죄두려움의 분산분석 결과, F값이 3.382, F값의 유의확률이 .010으로 유의확률 1%내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여성의 주택소유현황에 있어서도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여성이 2.9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이 1.9875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분산분석의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즉 조사대상 여성의 가족수입과 성범죄두려움의 분산분석 결과, F값이 5.213, F값의 유의확률이 .001로 유의확률 0.1%내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월소득 수준이 높은 여성일수록, 그리고 전세나 자가에 거주하는 여성일수록 지하철 내에서 성범죄두려움을 더욱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하철 내에서 여성이 느끼는 성범죄두려움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조사대상 여성들이 유형별로 느끼는 성범죄두려움의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여성들이 지하철 내에서 성범죄두려움을 느낄만한 유형을 열 가지로 설정을 하였으며, 각 유형별로 성범죄두려움의 정도를 설문지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우선, 유형별 성범죄두려움에 대한 기술적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Ⅳ - 1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제시된 열 가지 유형 중에서 손을 잡거나 신체의 일부분을 만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정도가 3.1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에서 껴안거나 몸을 뒤로 밀착시키는 것을 두려워하는 정도가 3.1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몸을 강제로 밀착시키고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정도가 3.04로 나타났는데, 위의 세 가지 유형은 지하철 내에서 가장 흔히 여성들이 경험하기 쉬운 성범죄의 유형으로서 생각된다.

<표Ⅳ - 13> 지하철 성범죄 유형별 범죄두려움 기술분석 결과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범 위
성적으로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말, 욕을 들음	2.77	1.161	1-5
손을 잡거나 신체의 일부분을 만짐	3.18	1.128	1-5
뒤에서 껴안거나 몸을 뒤로 밀착시킴	3.14	1.161	1-5
내 앞에서 성기를 일부로 노출시키고 서 있음	2.68	1.088	1-5
몸을 강제로 밀착시키고 가슴이나 엉덩이 만짐	3.04	1.216	1-5
강제로 키스 당함	2.40	1.076	1-5
성기를 손으로 만짐	2.42	1.162	1-5
강제로 성행위를 당함	2.39	1.151	1-5
몰래카메라(핸드폰)로 다리나 치마 속 찍힘	2.78	1.235	1-5
내 앞이나 뒤에서 노골적으로 입김 내뿜음	2.72	1.268	1-5

다음으로 최근 카메라 핸드폰의 대중화로 인해서 많은 성범죄 피해를 유발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몰래카메라 등으로 다리나 치마 속을 찍힐 것을 두려워하는 정도가 2.7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적으로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말 혹은 욕을 들을 것을 두려워하는 정도가 2.77, 내 앞이나 뒤에서 노골적으로 입김을 내뿜을 것을 두려워하는 정도가 2.72, 내 앞에서 성기를 일부로 노출시키고 서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2.68, 성기를 손으로 만질 것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는 2.42, 강제로 키스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2.40, 강제로 성행위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의 정도가 2.39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지하철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성범죄의 유형별로 그 발생 가능성이 다소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려움의 정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고 분석된다.

4) 평소 옷차림새 및 범죄정보 관심정도, 범죄에 대한 인식과 성범죄두려움의 관계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요인들과 지하철 내 성범죄두려움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Ⅳ - 14>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이 연구에서 고려한 모든 요인을 모두 지하철 내 성범죄두려움과 정적으로 $p < .01$ 수준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정보에 대한 관심과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인식은 전체두려움과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평소 화려한 옷차림은 신체두려움과 전체 성범죄두려움과 $p < .01$ 수준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가졌다. 평소 화려한 옷차림을 하는 여성은 언어적, 시각적 괴롭힘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으며, 대신 전체두려움(0.135) 보다는 신체두려움과의 관계가 0.151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범죄관심은 신체, 언어, 시각두려움 그리고 전체두려움과 $p < .01$ 수준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특히 전체두려움과의 관계는 0.237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범죄인식은 신체, 언어, 시각두려움 그리고 전체두려움과 $p < .01$ 수준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특히 언어두려움과의 관계가 0.29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화려한 옷차림 선호 및 범죄관심은 다른 두려움 보다도 신체두려움과 상관관계가 높으며, 범죄인식은 언어두려움과 상관관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화려한 옷차림 선호나 범죄인식 보다도 범죄에 대한 관심이 지하철 내 성범죄두려움과 상관관계가 더욱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Ⅳ - 14> 성범죄두려움과 주요요인들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주요요인	신체두려움	언어두려움	시각두려움	전체두려움
화려한 옷차림 선호	.151***	.033	.052	.135**
범죄관심	.234**	.185**	.172**	.237**
범죄인식	.211**	.298**	.119**	.226**

** $p < .01$

<표Ⅳ - 15>는 주요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지하철 내 성범죄두려움을 종속변수로 해서 회귀분석 한 결과이다. 먼저 화려한 옷차림 선호가 성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모형의 설명력은 .018로 전체 분산 중 1.8%가 설명되었으며, 범죄관심이 성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모형의 설명력은 .056으로 전체 분산 중 5.6%가 설명되었다. 또한 범죄인식이 성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모형의 설명력은 .051로 전체 분산 중 5.1%가 설명되었다. 따라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각각 1.8%, 5.6%, 5.1% 이었으나, 여기에서는 세 가지 독립요인

이 사용되어 지하철 내 성범죄두려움에 대한 설명력이 11.3%(R²)로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F값이 21.340이고 유의확률이 p<.001이므로 회귀방정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으며, 회귀방정식의 회귀값은 .135, .350, .298이고 t-값은 2.793, 4.947, 4.94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화려한 옷차림 선호와 범죄관심 및 범죄인식은 지하철 내 성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표Ⅳ - 15〉 주요요인들이 성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성범죄두려움				
독립변수	회귀값(B)	표준오차	Beta	t-값
화려한 옷차림 선호	.135	.048	2.793	2.793**
범죄관심	.350	.071	4.947	4.947***
범죄인식	.298	.060	4.942	4.942***
R ²	.113			
F값	21.340***			

** p < .01, *** p<.001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여성이 평소에 화려한 옷차림을 선호하고 바지보다는 치마를, 그리고 짧은 치마나 화려한 액세서리를 선호하는 것은 지하철 내 성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평소 범죄정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범죄가 발생하는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것 또한 지하철 내 성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결과이다. 즉, 이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한 요인과 지하철 내 성범죄두려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주요한 요인 모두 지하철 내 여성의 성범죄두려움과 관계가 있으며 또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소 옷차림새를 선호하는 여성일수록, 범죄정보에 관심이 많은 여성일수록, 일반적인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고 인식하는 여성일수록 성범죄두려움은 높을 것으로 볼 수 있다.

V. 결 론

범죄에 대한 어떠한 유형의 두려움에 대해서 논의를 하든지 사람들의 개인적 특성과 자신의 직접적인 환경이 개개인들로 하여금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시키게 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 여성의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공포는 범죄보도와 같은 간접적인 요인에 의해서 알게 된 범죄에 대한 지식에 의해서 주로 형성된 범죄에 대한 지식과 환경악화에 대한 인식이 결합하여 상호작용 한 결과라고 한다(이윤호, 1996: 128).

이 연구에서는 범죄두려움이라는 주제의 유형별 범죄두려움으로서 지하철 내 여성의 성범죄두려움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지하철 내에서 여성이 느끼는 성범죄의 두려움의 정도가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월소득 수준이 높은 여성 일수록, 그리고 전세나 자가에 거주하는 여성 일수록 지하철 내에서 성범죄두려움을 더욱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지하철 내 성범죄의 유형별로 그 발생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되는 성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두려움의 정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평소 여성의 화려한 옷차림 선호, 범죄정보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일반적인 범죄발생의 수준에 대한 인식과 지하철 내 성범죄두려움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주요한 요인 모두 지하철 내 여성의 성범죄두려움과 관계가 있으며 또한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논의한 모든 연구결과는 연구자가 설정한 몇 가지 연구과제와 연구가설의 검증에 지나지 않는데, 이 연구의 결과에서 설정한 지하철 내 성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들 외에도 더 많은 다양한 장소와 상황적 요인들, 그리고 관련 변수요인들을 고려하여 범죄두려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지속적인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구자숙 외. (2003). 노인의 범죄피해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형사정책연구」, 14(3): 141-173.
- 국민호·박한기. (1992). 범죄로부터의 두려움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23: 153-172.
- 김성언. (2003). 「경찰의 역할변화에 대한 조사연구 :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중심으로」.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 (2004a). 피해경험과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 성적 괴롭힘 피해경험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5(2): 217-263.
- _____. (2004b).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부모의 두려움. 「피해자학연구」, 12(1): 25-57.
- 노성호·김지선. (1998).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경험적 연구. 「피해자학연구」, 6: 169-205.
- 박순진. (2002). 범죄피해조사의 표집에 대한 재검토. 「피해자학연구」, 10(2): 21-38.
- 박순진·최영신. (1999).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Ⅲ).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정선. (1991).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그 예방. 「형사정책연구소식」, 5: 28-31.
- 박철현. (2005). 범죄피해경험, 이웃통합 그리고 범죄의 두려움 : 대학생에 대한 심층면접결과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13(1): 51-77.
- _____. (2003). 캠퍼스 범죄피해의 원인 : 생활양식이론의 검증. 「형사정책」, 15(1): 257-289.
- _____. (2001). 대학의 특성과 캠퍼스범죄피해. 「피해자학연구」, 9(2): 125-157.
- 성용은. (2005). 여성의 경찰활동 인식과 성범죄두려움 관계 분석. 「한국범죄심리연구」, 1(1): 147-180.
- 이기웅. (1995). 언론의 범죄보도와 범죄에 대한 공포. 「형사정책연구소식」, 28: 33-41.
- 이동원. (1996).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 전략. 「형사정책연구소식」, 34: 39-46.
- 이병기·이기웅. 「범죄보도가 시민의 범죄인식에 미치는 영향」.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상현. (2004). 「범죄심리학(제3판)」. 서울 : 박영사.
- 이성식. (2003). 지역무질서, 지역유대와 범죄피해의 관계. 「피해자학연구」, 11(1):

- 133-159.
- _____. (2000a). 거주지역의 특성과 범죄두려움 - 위험해석모델의 검증 -. 「형사정책연구」, 11(1): 117-139.
- _____. (2000b).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범죄두려움.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0: 133-159.
- 이윤호. (1996). 한국여성의 범죄에 대한 공포. 「교정연구」, 6: 101-131.
- _____. (1993). 범죄에 대한 공포 - 그 원인과 대응 -. 「형사정책연구」, 4(1): 27-44.
- _____. (1990). 시민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공포와 경찰 - 그 상관관계의 분석. 「행정논집」, 19: 239-257.
- _____. (1989). 범죄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고찰 - 범죄에 대한 공포, 그 원인 및 결과와 대책을 중심으로. 「현대사회」, 33: 153-170.
- 조병인. (2005). 치안역량 인자별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16(2): 5-44.
- 조은경. (2003).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1): 1-21.
- 최인섭·김지선·황지태. (2003).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김지선. (1997). 「범죄의 두려움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황성모. (1994). 지하철 범죄에 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소식」, 22: 9-16.
- 황지태. (2004). 수도권 지하철 내 절도범죄와 성폭력범죄의 비교분석. 「형사정책연구소식」, 84: 26-32.
- _____. (2003). 「지하철 내 범죄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Amerio, Piero and Roccato, Michele. (2005). A Predictive Model for Psychological Reactions to Crime in Italy: An Analysis of Fear of Crime and Concern about Crime as a Social Problem,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15: 17-28.
- Barker, Mary Holland, Nienstedt, Barbara C. Everett, Ronald S. and McCleary Richard. (1983). The Impact of a Crime Wave: Perceptions, Fear and Confidence in the Police. *Law and Society Review*, 17: 319-335.
- Block, Richard. (1993). A Cross-National Comparison of Victim of Crime: Victim Surveys of Twelve Countries. *International Review of Victimology*, 2: 183-207.
- Castillo, Del V. (1992). *Fear of Crime in the New York City subway*, doctoral

- dissertation, Fordham University, Dept. of Sociology, New York.
- Ditton, Jason and Stephen, Farrall. (2000). *The Fear of Crime*. Vermont : Ashgate Publishing Company.
- Doob, Anthony N. and Macdonald, Glenn E. (1979). Television Viewing and Fear of Victimization: Is the Relationship Causa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70-179.
- Ellis, A. (1967). The Psychology of Sex Offender. *The Encyclopedia of Crime & Sexual Behavior*. New York : Hawthorn Books.
- Garbner, George and Gross, Larry. (1976). Living With Television: The Violence Profile. *Journal of Communication*, Spring: 173-199.
- Gardner, Carol Brooks. (1990). Safe Conduct: Women, Crime, and Self in Public Places. *Social Problems*, 37: 311-328.
- Gilchrist, Elizabeth, and Bannister, Jon. (2004). From Imitation To Intimidation: A Note on the Curious and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a, Crime and Fear of Crime.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4: 595-610.
- Goodey, Jo. (1997). Boys Don't Cry : Masculinities, Fear of Crime and Fearlessnes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7: 401-418.
- Heath, Linda and Petraitis, John. (1987). Television Viewing and Fear of Crime: Where Is the Mean World?.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8: 97-123.
- Hening, Jeffrey and Maxfield, Michael G. (1978). Reducing Fear of Crime: Strategies for Intervention. *Victimology: An International Journal*, 3: 297-313.
- Jackson, Jonathan. (2004). Experience and Expression: Social and Cultural Significance in the Fear of Crime.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4: 946-966.
- James Garofalo. (1979). Victimization and fear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16(1): 92.
- Karmen, Andrew. (2001). *Crime Victims : An Introduction to Victimology*. 4th ed. California, Belmont : Wadsworth, Inc.
- Liska, Allen E. and Baccaglini, William. (1990). Feeling Safe by Comparison: Crime in the Newspapers. *Social Problems*, 37: 360-374.
- Skogan, Wesley G. (1987). The Impact of Victimization on Fear. *Crime & Delinquency*, 33: 135-154.
- Tulloch, Marian. (2000). The Meaning of age Differences in the Fear of

Crime.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0: 451-467.

Vigne, La N.G. (1996). *Crime Prevention Through the Design and Management of the Built Environment: The Case of the DC Metro*, doctoral dissertation, Rutgers, The State of University of New Jersey, School of Criminal Justice, Newark, New Jersey.

Williams, Paul and Dickinson, Julie. (1993). Fear of Crime: Read All About It? The Relationship between Newspaper Crime Reporting and Fear of Crim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3: 33-56.

宮澤浩一 저, 장규원 역. (1999). 「피해자학입문」. 서울 : 길안사.

국회. (2005). 국정감사자료.

ABSTRACT

Analysis on the Korean Women's Fear of Sexual Crime in Seoul Metropolitan Subway System

Lee, Yoon Ho · Seong, Yong Eun · Yoo, Young Jae · Jun, Eun Joo

This study seeks to analyze various aspects of women's fear of sexual crime committed against them within the Seoul metropolitan subway system, which takes center stage in public transportation today in Korea; that is, among different kinds of fear of crime, women's fear of sexual crime is empirically examined, and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all serve as an important basis for future policy-making, so that the fear of sexual crime against women in the subway system could be reduced.

To that end, this study aims first, to investigate the real picture of women's using the subway and their attire, second, to look into the amount of information on such crime obtained and the level of its awareness, thir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fear of sexual crime in the subway system, and lastly, to empirically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regular attire/their level of information on such crime obtained and their fear of sexual crime. As a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to discover facts, this study utilizes reality-analytical and technical research methods, and for its final statistical analysis, uses questionnaire answered and returned by 509 women, out of a total of 520 female commuters on the Seoul metropolitan subway system who had originally been requested to participate in the survey.

The result of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level of women's fear of sexual crime on the subway is relatively high. In detail, the higher their monthly income is, the more fearful women feel on the subway; it has also been found that women living in housing they own or in leased housing on deposits (Jeonse) fear sexual crime on the subway more than those living in the other forms of housing. However, the level of fear has been found to be low for those types of sexual crime judged to be relatively unlikely to be committed. Lastly the resul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regular attire/their level of information on such crime obtained and their fear of sexual crime is relatively high and very effective.

Key Word: Women, Seoul Metropolitan Subway, Sexual Offense, Fear of Crime, Fear of Sexual Offense